



화태대교

다도해의 꿈을 잇는다 '일레븐 브릿지'

여수~고흥 11개 연륙·연도교 2020년 완공 목표 공사 순조

여수와 고흥을 11개의 다리로 연결해 남해안의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연륙·연도교 가설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청장 유성용)이 추진하는 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현재 1시간 20분이 걸리는 여수~고흥간 이동시간을 40분으로 단축할 수 있다. 또 다도해의 아름다운 섬을 더욱 쉽게 오갈 수 있게 돼 여수, 고흥 일대의 관광 산업에도 대변혁이 기대되고 있다.

사업 개요

- 위치: 여수 돌산~회양~고흥 영남
- 노선명: 국도 77호선(부산~인천)
- 사업구간: 41.4km(연륙·연도교 11개)
- 사업비: 1조 1025억원(전액 국비)
- 사업기간: 2004년~2020년

◇전반적인 공사 차질없이 진행=과거부터 빗길 등을 통해 동일 문화권이었던 여수반도와 고흥반도의 섬들을 11개의 다리로 연결하는 연륙·연도교 사업은 교통여건 개선과 관광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본격 시작됐다.

전동호 여수시 건설교통국장은 "여수·고흥 9개 섬을 연결하는 국도 77호선 41.4km 11개 교량 연결사업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총 1조102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섬을 연결하는 11개의 다리가 모두 완공되면 천연의 비경(秘景)을 간직한 365개의 섬을 보유한 여수시의 섬관광 활성화와 정책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4년 여수시 화정면 적금도와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사이를 연결하는 '적금대교' 가설공사를 시작했다. 현수교인 이 다리는 10년만인 올해 초 마지막 상판 연결을 마치면서 위용을 드러냈다. 길이 1340m, 폭 16.2m(2차로)의 적금대교는 주탑과 주탑사이 경간(經間)이 850m로 국내 현수교 중 이순신 대교(1545m)와 울산대교에 이어 세 번째로 길다.



이동시간 80분→40분으로 줄어 섬 관광 대변혁 예고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예산 확보 등 대책 마련 시급

100% 국내기술로 케이블 제작과 설치를 마무리 한 적금대교는 총 길이 3km의 구간을 2648억원을 들여 2016년 6월 완공할 예정이다. 현재 83%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화양면과 백야도를 잇는 백야대교는 지난 2005년 이미 완공됐다. 적금대교와 같은 해 공사에 착수해 지난 7월 마지막 상판 연결을 마친 화태대교도 공정률 81%를 보이고 있다. 1506억원을 들여 내년 말까지 돌산~회양간 4km 구간엔 연도교와 접속교, 육상교량을 설치한다. 사장교인 화태대교는 주탑높이가 130m에 달해 강제(특수철강) 주탑으로는 국내최대 규모다. 주경간장(교각과 교각 사이 거리)도 500m로 국내 사장교 중 3번째로 길다. 여수 화양면과 적금도를 연결하는 공사(16.9km)도 4개 공구로 나뉘어 공사가 한창이다. 화양면~조발도~문병도~남도~적금도 4개

의 섬을 5개의 연륙·연도교로 연결하는데 총 3300억원을 투입, 2020년 완공할 예정이다. ◇예산확보 등 해결과제=11개의 연륙·연도교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적금대교와 화태대교와 달리 나머지 교량이 모두 완공되기까지는 5~6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예산확보가 관건이다. 예산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도 지난 10년간 꾸준히 공사를 진행해 온 적금·화태대교와 달리 나머지 교량의 예산확보가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예산확보가 이뤄지지 않아 돌산 화태와 백야도를 잇는 연륙·연도교 가설 공사는 시작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화태~백야도 구간 공사 착공을 위한 여수시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전남도와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수차례 국

토교통부를 방문, 예산확보 등 공사착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전동호 건설교통국장은 "화태·백야구간 연도교 가설공사를 오는 2016년부터 5년간 진행될 '제4차 국도 5개년 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 달라 요청 중이다"며 "내년 6월 2년간의 용역이 끝나면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연륙·연도교 개통에 따른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도 시급하다. 이에 각 섬을 둘러볼 수 있는 셋길 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름다운 천연 생태계를 간직한 섬들과 관광객을 위한 기본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도심이 속속들이 연결되면 관광객 유입효과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여수시 이노철 해양관광수산국장은 "전국적 명성을 얻고 있는 아름다운 섬들과 연륙·연도교 사업을 연계하면 지역관광활성화에 큰 활력이 될 것"이라며 "섬 체험프로그램 확대 등 섬 관광 대중화와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도 본격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박람회장·원도심 일대 '관광특구' 지정 추진

여수 세계박람회장과 인근 원도심 지역의 '관광특구' 지정이 추진된다. 여수시는 지난 11일 시청 회의실에서 여수시의회와 시민위원회, 관광진흥위원회, 관광발전협의회, 전문가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용역 수행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이날 최종 용역 결과보고를 통해 "여수 박람회장을 포함, 검은모래 만성리 해변과 오동도, 공화·수정·관문·중앙·서강·남산동, 돌산 우두리 등 5km의 원도심 일대를 특구로 지정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남도의 승인을 얻어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호텔 사업자에게 저리의 용자가 제공되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카지노 운영도 허용된다. 하지만 관광특구 지정에 위해서는 특구 안에 포함된 지역들이 서로 분리되지 않아야 하는데 해양관광 단지로 조성된 대경도가 포함될 경우 관광숙박시설과 골프장의 중첩과 논란이 큰 카지노 허가 등의 문제 등도 안고 있다. 또 특구내 관광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비율이 특구 전체 면적의 10% 이내여야 한다는 조건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여수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수, 관광인프라, 토지 이용비율, 비분리성 요건에 모두 충족돼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여수시 관계자는 "최종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검토하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특구 지정권자인 전남도에 관광특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한화의 지역 상생 돋보이네

올 신입사원 151명 중 140명 지역민 채용 (주)한화 여수 사업장이 올해 신입사원 10명 중 9명을 지역민으로 채용했다. 대기업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지역민 비율을 90% 이상 배려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여수시는 15일 "여수 신원동에 위치한 한화 사업장이 올해 신입사원 151명 중 93%인 140명을 지역민으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한화 여수사업장은 지역정착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관외 출·퇴근 차량운행을 중단해 직원들이 여수시에 자택을 두고 출·퇴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여수 한화사업장 총 직원 1002명 가운데 85% 수준인 856명 가량이 여수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다. 또 한화는 지역에서 생산된 음식재료를 사용하고 각종 발주 공사에 지역 업체가 참여토록 제도화했다. 앞서 한화 여수사업장은 지난 1985년 7억원을 투자해 시립 현암도서관을 지어 여수시에 기부했으며, 지난 1999년에는 47억원을 들여 신원로를 개설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복지관 봉사활동과 지역 아동센터 지원, 사랑의 집수리 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오양석 한화 여수사업장은 "지역기업으로서 지역민을 우선 채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느냐"면서 "앞으로도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화는 방산용 화약류를 제조하는 업체로 지난 40여년 동안 여수사업장을 운영해오고 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시내지국

광천	366-8375
광남	222-9440
남부	652-0175
동광	264-2012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문흥	267-4748
백운	673-4698
봉신	675-5530
북광주	525-3761
상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송하	676-8605
신안	512-1732
양산	571-7658
오치	266-7601
용봉	522-7752
우산	512-8116
운천	371-9818
월곡	961-2339
중양	222-1896
중흥	224-8604
진월	673-1600
첨단	973-2900
충장	224-8212
치평	376-6511
봉암	682-8112
하남	959-1500
화정	375-9862

지방지사

광산	062)944-0444	남원시	063)633-9911
군산시	063)467-2500	순창군	063)653-0444
정읍시	063)531-5544	서울보급소	02)313-5962

이농향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2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_062 227-9600 | 신문구독_062 220-0551 | 예향구독_062 220-0550